



이것은 멜빈목사님의 첫번째 책과, 그 책을 가지고 사역해 온 저의 글을 월간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냐 멜빈대학교를 위해서는 영어로 만들고, 한국에서는 한글판을 만듭니다.

[2025년] 2월

## 평신도목회LPM과 PACE사역

평신도목회 LPM/PACE는 1978년 미국의 멜빈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평신도의 목회적돌봄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 목 차 (멜빈)

“외로운 유격대”로서 반드시 가야 할 나의 목회예정: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

1. 평신도가 정말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사랑”이 필요하다. 많은 평신도들이 나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들은 사실상 목회자가 될 수 있다.

2. 그것은 성경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평신도들에게 목회적 은사를 주셨으며 그들을 목회에 부르신다. 모세의 모델은 오늘날 그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준다.

3. 평신도목회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육적이든, 이성적이든, 영적이든- 돌봄의필요를 가지고 있다. 몸 바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신자들이 평안한때이든 어려운 때이든 언제나 계속해서 목회적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

4. 시작하라

이 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제 당신은 목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목회사역을 위해 평신도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이며,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5. 평신도목회자가 하는 일

머리글자 PACE는 평신도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평신도 목회자로서 일곱가지 헌신이 있어야 한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6.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목회사역에 대해 문의 해 올 것이다. 이 목회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라.

7. 평신도를 목회자로 훈련하라

15시간이 소요되는 훈련 세미나 자료, 12가지의 훈련 주제 중 7가지

8. 문제들을 잘 다루라

목회상 일곱 개의 일반적인 어려운 문제 - 어려운 문제들은 목회를 약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해 줄 수 있다

9. 목회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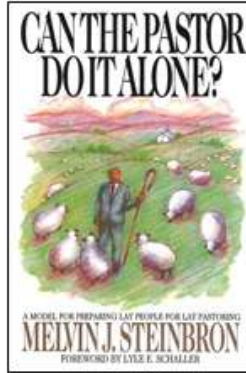
기존 목회와 양육목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

10. 형태를 찾아서

“기능은 형식을 결정한다”고 하는 원칙은 목회의 구조적인 개선

11. 평신도목회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순수한 목회를 하고 있는 평신도 목회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성도들에 대해 평신도 목회자들이 직접 쓴 방문보고서



이 책 전반에 나오는 “목회”란 목양(pastoring), 즉, 목회적돌봄을 의미합니다.(멜빈/역자주)

12.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푸딩은 맛을 보아야 한다. 평신도의 목회적 돌봄을 받아 본 사람들이 얘기한다.

13. 평신도목회를 적용해본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다섯 명의 목사가 평신도 목회에 관해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다. 그들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평신도목회자의 능력과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14. 작은 교회의 목사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230명 밖에 안되는 작은 교회이지만, 2,200명의 큰 교회가 전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개발한 목회방식을 채용하여 잘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원리가 건전하기 때문에 잘 적용되는 것이다. 토마스 패리쉬 목사의 탁월한 평신도목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

### 서 문 (릴리 E. 샬러)

지난 35년간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람”(enabler)이라는 말은 평신도 지도자나 임원들 사이에서는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게으르다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enabler”들은 평신도들이 “교회운영”이나 목회사역을 도움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기를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고귀한 목표에 대한 세 가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

첫째로, 이 책은 평신도를 격려하고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지도자로서 목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지도자의 역할이란 비전과 일과 계획과 끈기와 신뢰를 갖추는 책임을 말한다.

둘째로, 저자는 평신도가 목회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신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행정업무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교회는 목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이다.

이 책은 왜 이것이 구속사적인 예배공동체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지, 그리고 목회사역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어떻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책은 평신도가 평신도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 (평신도목회와 목회적돌봄)

평신도목회와 목회적돌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이것이 흥미로운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이 둘은 다르다. 평신도는 보시다시피 평신도이고, 목회도 목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신학교에서는 평신도목회 과목이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목회적돌봄 과목이 있다. 캐나다에서 내가 다니던 학교도 이 두 개의 과목이 별개로 있었지만, 우리의 LPM에서는 이 두 가지 다른 개념이 통합되어있다. 물론 멜빈 박사는 평신도목회(4:11-12화)에서 출발하여 목회적돌봄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단독 목회하던 교회에서 평신도목회를 성경 속에서 찾았지만, 실제로 평신도목회를 했는가? 그리고 나서 그는 지역 교회의 두 가지 목표인 1. 복음 전도(마 28:19-20); 2. 목회적 돌봄(요 21:15-17)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합했다. 멜빈목사님의 탁월성이 이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모든 교회에 첫 번째 목표(전도)에 대한 자료는 많지만, 두 번째인 평신도의 목회적돌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평신도목회와 목회적 돌봄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개발했는데 바로 LPM이다. 즉 Lay Pastors Ministry이다. 어쨌든,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신도목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우리의 사역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대학의 폴 스티븐스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평신도사역에서 가장 저명한 신학자이자 실천가이다. 그런데 그가 멜빈의 평신도목회(LPM)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책인 "Liberating the Laity" 을 보면, 그는 평신도사역의 세 가지 모델을 언급했는데, 스테반 사역 Stephen Ministry; 하워드 스톤의 Caring Church, 그리고 멜빈의 평신도목회 Lay Pastors Ministry였다.◆

## (이 사역의 의미)



나는 이 사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발견했다:

첫째, 모든 신자는 목회자라는 것이다.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데, 평신도목회의 핵심개념인 에베소서 4장 11~12절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1970년대 루터교 신학자 오스카 푸케트는 '모든 사람은 목회자'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목회자만이 목회자인 줄 알았던 시대라 특히 목사들에게는 충격을 줬다. 그러나 오스카는 그리스도를 믿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매달 목사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MINISTERIUM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여기에 적용시켰다.

둘째, 사역에서 동역자 개념이다. 샌디에이고의 스카이라인 감리교회 목사인 제임스 갈로우 박사는 "목회에서 동역자" 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그가 드류 대학에서 박사 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그는 책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인 우리가 목회의 동역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강남의 한 교회는 '제자와 만들기' 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아시아교회에서도 유명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업그레이드되어서, 슬로건을 '목회에서 동역자인 교회' 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 교회의 장기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다.

셋째, 목사가 성장하고 또 평신도가 성장한다. 물론, 그들은 성장해 있다. 그러나 적절한 패러다임과 사역의 방향이 없다면 그들의 성장은 미미했다. 그래서 평신도 목회를 통해 평신도와 목회자 양쪽 모두 성장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넷째, 교회의 건강이다. 이것은 교회의 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 교회가 좋으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문화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평신도목회자들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문화는 헌신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팀 사역, 여기서 팀 사역이란 목회자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대 평신도를 말한다. 그들은 팀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그들의 담임목사님과 함께 사역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하며, 평신도들 사이에서 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너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WE' 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관심을 끈 제목 때문에 'Me to We' 라는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한국어로도 번역해서 잘 활용하였다. 나이가 든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의 대화가 그 내용이었다. 젊은 목사는 자신의 교회 사역에 대해 고군분투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목사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조언한 것이다.◆

## (대사명과 대현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이 평신도목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잘 안다. 1) 스테반 사역은 위기 돌봄 사역인데,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스테반 사역자가 찾아가 보살핀다. 하지만 그들이 편찮아지면 그 사역자는 손을 뗀다. 이 사역의 시스템과 재료는 매우 훌륭하지만, 문제는 일주일간의 훈련이 너무 길고, 또한 훈련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LPM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너무 비싼 거의 200달러이지만, LPM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어쨌든 그것은 보살피는 사역이다. 2) 하워드 스톤의 '돌봄 교회' 도 교회 내 돌봄 사역이다. 3) LPM/PACE도 돌봄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볼 때 평신도목회 전문가인 폴 스티븐스 교수도 돌봄 사역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보면 평신도사역은 우리가 발견한 바와 같이, 돌봄 사역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평신도목회는 목사의 돌봄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그래서 멜빈이 개발한 접근법과 시스템은 올바르고 교회에 좋다. 물론 그가 다른 사역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새 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의 두 번째 책인 "Lay Driven Church" 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거기서 그는 두 개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소위 대사명과 대현장(전도와 돌봄)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후자를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회에서 동역자)



성경을 보면 전도가 아닌 목회적돌봄에 중점을 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많은데, 나가랜드 교회에도 정말 목회적돌봄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개의 예가 있다. 한국에서 나는 나가랜드 학생들과 PACE를 공부했다. 한 명은 인도 Pune대학에서 고고학을 한 박사였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 유학 온 신학생이었다. 나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두 번 나가랜드를 방문했다. 나가랜드에 머무는

동안 알로토 학장과 나는 강사로 개 교회에 초대받았다. 첫 번째 교회는 100명 정도가 참석한 시골이었고, 거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에 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교회는 시내에 있었는데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같은 본문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두 번째 교회에서는 '목회에서 통역자'를 강조했다. 예배가 끝난 후 담임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해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나를 위해 통역을 해주었다. 목사님께 내 설교가 어땠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목회에 동역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심어준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알로토 본인으로부터, 그리고 두 교회로부터 Nagaland 교회가 이 사역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학생들을 위한 PACE와 CPE)

나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임상 목회훈련(CPE)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 LPM을 나 자신이 수용하기는 쉬웠다. CPE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학교의 졸업반쯤에 받게 되는 목회적돌봄의 훈련이다. 내가 캐나다 해밀턴에 있는 맥매스터 신학교의 M.Div 졸업을 하기 위해 CPE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Woodstock에 있는 정신신체아들 병원에서 3개월, 그 다음 나중에는 Whitby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추가훈련을 받았다. 나는 두 명의 CPE 지도교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아시다시피 CPE는 목사들을 위한 것이지만 평신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가끔 평신도들이 와서 CPE 훈련을 받기도 한다. 어쨌든 그것은 미래의 목사들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사역 LPM은 순수한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교회와 목사들을 위한

것이지만, 평신도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일까? 그들, 즉 평신도들도 목사들처럼 성장할 필요가 있다. 나는 Nagaland에 있는 동안 CPE를 학생들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학생들이 나에게 PACE 사역(12과의 훈련내용)을 배워서, CPE를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쉽게 이해했기 때문에 PACE는 그들에게 유익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PACE와 CPE,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신도목회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현재 상황을 알고 있듯이 담임목사님 혼자서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가 쉽지 않지만, 평신도들과 함께 일할 때는, 이 사회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나는 미국에서 강사가 온 한 교회의 부흥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첫 주에 왔고, 또 그다음 주에 교회가 그를 다시 초청했다. 그래서 그는 2주 동안 두 번 왔다. LA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14시간이나 걸리는데 왜 그들은 그를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초청했을까? 그는 거의 평신도였기 때문인데 목사안수를 받고, 자신의 교회(미국인 성도들)가 있지만, 교회 건물의 절반을 사용하여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었다. 즉 교회를 잘 아는, 거의 평신도라는 것이었다.

가진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는 평신도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Upper Rooms를 읽는 것을 즐긴다. 사실 나는 한국에서 그 소책자를 읽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Nagaland의 PACE 신학교에 있는 동안,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2층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습관이 되었다. 내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여전히 그 책자를 읽고 그 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왜 그 책자가 나를 흥미롭게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 개인적인 이야기,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들의 실제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평신도목회가 중요한 이유다. 목사님들의 이야기? 물론 그것들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가 아니라 교훈적이어야 하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에 더 중점을 둔다. 또한 평신도들은 사람들, 특히 그들의 목사들보다 그들의 동료 성도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내면의 이야기, 고통, 투쟁, 손실, 어려움을 공유하기가 훨씬 더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동료가 자신들의 말을 더 잘 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목사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자주 털어놓는 것이 더 편하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평신도목회가 효과적인 이유가 있다.◆

부흥회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주변 사람들, 사업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해서 두 번이나 초청을 받았다. 물론 그 부흥회에 와서 설교한 국내의 저명한 목사들도 한 번만 불렀는데, 꼭 그를 두 번을 부른 이유는 뭘까? 더구나 비싼 비행기 표를 대주기까지 하면서. 그것은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상황과 삶에서 얻은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가 두 가지 직업을





## 만남의 중요성



인생에서 서로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의 경우 세 만남이 있다: 미국 멜빈목사님과의 만남. 한국 김상복목사님과의 만남. 케냐 오길라목사와의 만남.

(미국 멜빈목사님과의 만남) 1998년 그분의 책, *Can The Pastor Do It Alone?* (1987)<sup>1)</sup> 을 통해 만남이 시작되었다. 캐나다/Canada 에서 귀국하여 성결대에서 원서강독을 하게 되었는데, 캐나다에서 임상목회훈련(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을 받은 적이 있기에, pastoral care에 관한 책을 가지고 원서강독하는 것으로 학교와 결정이 났다.

그래서 책을 찾던 중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 (당시 서대문구 충정로)의 루스 엘스너(Ruth Elsner) 교수로부터 멜빈목사님의 영어책을 소개받으면서 멜빈목사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엘스너 교수가 나에게 그 책을 주면서, "이 책과 이 사역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적중하여 그 이후 20여년간 평신도목회라는 테마로 사역의 꽃이 피게 되었다. 내용은 평신도도 목회자와 꼭 같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멜빈목사님과의 직접 만남<sup>2)</sup>, 그리고 사역을 전수받아 한국교회들을 섬기고, 급기야 케냐에 가서 멜빈대학교/Melvin University(종합대학교)를 세우고, 케냐정부로

부터 인가받아 설립총장 (founding president)으로 학교를 진행시키고 있다.

(김상복목사님과의) 만남은 1999년 서울 방배동에서 평신도목회 연구소를 시작할 때에 연결이 되어서 거의 15년간 사역으로서 동역하게 되었다. 연구소를 시작하면서 신학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김상복목사님께 (당시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님) 영문 자료를 팩스로 넣었는데, 좀 더 알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더 넣어드렸고, 그 이후 수석 부목사를 내게 보내어 양재동 햇빛회관에서 11월에 만나고, 그 이듬해 4월에 미국 컨퍼런스에 그 교회 교인들 10여명과 함께 참석하고, 귀국하여 바로 6월에 (2000년) 평신도목회 전국 컨퍼런스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개최하면서, 목사님과의 만남은 필연이 되어 그 이후 은퇴 하실 때 까지 동역하시면서, 저희 연구소와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사역은 한국교회에서 성공하였고, 또 할렐루야교회에는 유익이 되어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동역이(Partners in ministry) 있었던 것이다.

(케냐 오길라목사와의) 만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같은 사역테마로 한국연구소에서 재정 지원하여 "케냐에 연구소오픈, 신학교설립"하여 진행하던 중, 작년 5월에 영문자료를 좀 많이 보내주었더니, "이 정도면 대학교/university 설립이 가능하다며, 가지고 있는 땅이 18,000평이 된다고하여, 여러가지로 준비하여 작년 12월 4일에 착공식을 하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건축하여, 지난 8월 14일에 Melvin University로, 케냐정부로부터 인가받아 진행하고 있다. 어쨌든 만남의 귀함을 알게 해 준 예라고 본다

또 하나의 다른 만남을 소개하자면: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와 나폴레옹 힐(Napoleon Hill)의 만남이라 보겠다. 카네기는 미국의 강철왕으로, 또 뉴욕 맨하탄의 카네기홀로 잘 알려져 있다. 힐은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몇가지 직업을 바꾸어 가다가 마지막에 출판사를 차려 잡지를 발행하던 중,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가기로 마음먹고 카네기를 찾아갔다. 여기서 두사람의 만남이 역사를 바꾸어놓는 일이 생긴 것이다.

두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 카네기가 힐에게 제안한다. "앞으로 20년간 전세계를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인터뷰 하라. 그리고 성공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책을 만들자. 20여년간 모든 비용- 가족생활비, 호텔비, 비행기로 전부를 내가 대주겠다." 카네기의 이런 제안을 힐이 받아들여 20년간 인터뷰하여 발견된 자료들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 쓴 책, "The Law of Success"(1928, 817페이지)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라 생각 된다.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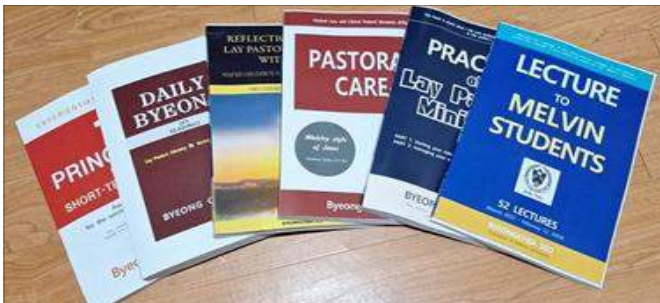
<sup>1)</sup> 이 책은,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로 번역되어 (서병채 역) 한국교회들에서 15년간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sup>2)</sup> 멜빈목사님은 이 사역(Lay Pastors Ministry)을 미국 전역에서 30년째 하시고 계신터라 많은 자료와 노하우를 전수받았고, 또 계속 하여 멘토로서 도움을 받았다. 멜빈목사님은 2017년에 94세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 멜빈대학교 University

Kenya Africa sinc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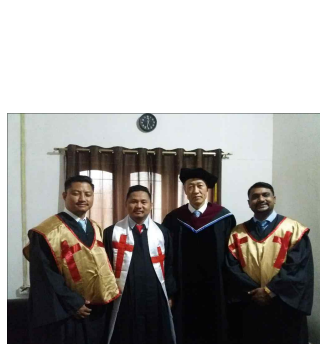


**Melvin University**  
P.O. Box 183  
Zip Code 40222-Oyugis  
Homa Bay County  
Kenya, Africa  
Tel: +254-113-760477  
[www.melvinuniv.org](http://www.melvinuniv.org)



# PACE신학교 Seminary

Nagaland India since 2015



**PACE International Seminary**  
Sangtamtila Village  
Rangapahar crossing  
Dimapur-797112  
Nagaland, India  
Tel: +91-70056-02847  
[www.pisnagaland.org](http://www.pisnagaland.org)

